

고전 경험론에서의 실재론 논쟁*

김효명**

I

어느 시대의 철학이든 거기에는 그 시대의 고유한 특수문제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특수문제들과 유기적 관계를 가지면서도 그 시대만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보편적인 문제들도 있게 마련이다. 그것은 아마도 인간의 사고 방식과 삶의 방식 자체가 시간의 경과와 함께 끊임없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구조의 면에서는 어떤 보편성도 또한 띠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서양의 철학사를 보면 그때 그때의 철학적 문제들이 다양한 내용과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되고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그 중에서도 어떤 기본적인, 따라서 보편적이라 할 수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제기되고 논의되는 방식은 다르지만 그 내용은 큰 변화 없이 반복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현대철학에서 뜨거운 논쟁거리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 소위 ‘과학적 실재론’(scientific realism)의 문제도 바로 그러한 문제들 중의 하나라고 보아진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한 고전적 형태를 우리는 17, 18세기 영국의 고전 경험론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여 과학적 실재론과 이에 대립되는 반실재론(anti-realism)이 보이고 있는 시각과 입장의 차이는 고전적으로는 바로 록크(J. Locke)의 지각이론과 베클리(G. Berkeley)의 지각이론간의 입장 차이와 그 기본적인 시각에서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실재론이라는 현대적 문제의 한 역사적 배경으로서의 고전적 지각이론에 대한 이해는 현대적 문제의 깊이를 아는 데에 일조가 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이 글에서 현대의 과학적 실재론의 문제와 관련된 물음이 고전 경험론에서는 어떻게 제기되고 어떤 방식으로 논의되었는지를 록크와 베클리의 지각이론을 개괄적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알아보고자 한다.

* 이 논문은 98년도 서울대 발전기금 일반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II

과학적 실재론의 주장을 소박하게 말하여 “자연과학이 보여주는 세계의 그림은 참된 그림이다. 자연과학에서 이론적으로 요청되는 것들(entities)은 정말로 존재하는 것들로서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실재적인 요소들이다”라고 한다면¹⁾ 17세기의 경험론자 록크의 실재론도 바로 ‘과학적 실재론’이라 불러 무방할 것 같다. 왜냐하면 록크도 당시의 자연과학, 특히 뉴턴(I. Newton)이나 보일(R. Boyle)의 과학이 제시한 세계상을 참된 것이라고 굳게 믿었었고, 당시 과학의 이른바 ‘입자가설’(corpuscular hypothesis)에서 요청되었던 입자들이 정말로 실재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²⁾ 단순히 믿기만 한 정도에 그치지 않고 그는 이 입자가설에 근거하여 그의 인식이론을 발전시켰고, 이에 근거하여 그의 세계관을 정립시켰던 것이다. 보일이나 뉴턴 같은 당시의 지도적 과학자들은 입자가설을 하나의 사변적인 또는 형이상학적인 가설에 불과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에게서 입자가설은 귀납적으로 확증 가능한 ‘과학적’ 이론이었다. 당시의 새로운 과학의 업적들을 높이 평가하였던 록크도 이 입자가설이 참된 이론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근거하여 그는 이 물리적 세계가 우리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으며, 이 물리적 세계에는 새로운 실험과학에서 밝혀 놓은 여러 성질들이 정말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그는 지각현상을 설명할 때도 실재론을 전제하였다. 그는 우리의 일상적인 감각 경험을 물리적 대상이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끼쳐서 일어나는 어떤 것으로 보았다. 대상세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철학적 물음은 록크의 인식론에서는 문제시 안되고 따라서 그것에 대한 대답도 찾아 볼 수 없다.³⁾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식과는 상관없이 대상세계는 그 자체 객관적으로 존

1) Cf. Bas C. Van Fraassen, *The Scientific Image*, Oxford, 1980, pp. 6.

2) Cf. R. Boyle, “The Origin of Forms and Qualities According to the Corpuscular Philosophy,” (published in 1666) Reprinted in *Selected Philosophical Papers of Robert Boyle*, ed. by M. A. Stewart, Cambridge, 1991, pp. 1-96.

3) Cf. J. W. Yolton, *Locke and the Compass of Human Understanding: A Selective Commentary on the 'Essay'*, Cambridge, 1970. p. 14.

Yolton의 분석에 의하면 ‘지식의 원천, 지식의 확실성, 지식의 범위에 대한 록크의 탐구는 기술적인(descriptive) 것’이지 지식의 정당성을 묻는(justificatory) 작업은 아니었다.

재한다는 실재론적 가정은 록크의 지각이론의 전체 틀을 규정지어 준 근본전제였다.

록크의 지각이론에 의하면 우리의 감각기관이 ‘외부대상’(external objects)과의 실질적인 접촉에 의하거나 아니면 시각의 경우에서와 같이 외부대상으로부터 나온 ‘눈에 띄지 않는 입자들’(insensible particles)에 의하여 물리적인 자극을 받아 이 자극이 적절한 신경을 통하여 두뇌로 전달되는 현상이 바로 감각(sensation)이다.⁴⁾ 그러나 이 자극이 두뇌에 도달하게 될 때 물리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현상이 발생한다. 즉 자극 받는 단계까지의 과정은 기계적이고 물리적인데 반하여 이것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결과는 ‘마음속에서의’(in the mind) 사건이라는 비물리적인 것이 된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비물리적 사건을 록크는 ‘감각 관념’(idea of sensation)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관념을 가진다는 것과 애초에 자극을 일으킨 외부대상 자체를 의식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다. 이 점은 록크 스스로도 인정하였던 바이다. 마음속에 어떤 관념을 가진다 함은 바로 그 관념을 의식함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의식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여 관념들이지 그 관념들을 일으킨 외부대상들은 아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의식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관념뿐이라는 주장은 록크의 지각이론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외부대상들은 직접적으로 인지되거나 의식될 수 없고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관념들에 의하여 표상될(represented) 뿐이다.

록크의 이러한 이론을 우리는 흔히 ‘표상적 실재론’(representative realism) 또는 ‘인과적 실재론’(causal realism)이라고도 부르는데⁵⁾ 표상적 실재론에서 항상 제

4) Cf. J. Locke,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ed. by P. H. Nidditch, Oxford, 1975, Book II, Ch. VIII, 12, p. 136.

5) 록크의 지각이론을 ‘인과적 실재론’이라 부르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그것을 ‘표상적 실재론’이라 명명하는 데에는 적잖은 이의가 있을 수 있겠다. 실제로 몇몇 학자들은 록크의 또 다른 글(*Examination of P. Malebranche's Opinion*)에 근거하여 정반대의 견해, 즉 록크가 표상적 실재론을 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비판하였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Cf. A. D. Woozley, *Fontana Library Abridgement of the Essay*, London, 1964.

그러나 록크를 표상적 실재론자로 본 전통적인 해석이 그와 반대되는 듯한 구절이 몇 군데 발견되었다고 해서 쉽사리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표상적 실재론’이라는 이름은 물론 지각이론에 관한 다른 이름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없던 이름들이었고, 따라서 ‘표상적 실재론’이라는 이름으로 현대의 지각이론가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가 그대로 록크의 사고에도 자리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름이야 어떻

기될 수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관념들이 그것들의 원인이라고 간주되는 외부대상들을 과연 있는 그대로 충실히(faithfully), 또는 참되게(veridically) 표상해 주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록크의 대답은 어떤 경우에는 그렇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저 유명한 1차 성질(primary quality)과 2차(secondary) 성질간의 구별이 바로 그러한 경우들에 속한다. 1, 2차 성질의 구분은 그 당시의 과학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이론인데 록크도 이를 이론의 여지없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1차 성질들은 외부 대상들 속에 실지로 존재하지만 2차 성질들은 대상들이 우리의 감각기관에 영향을 주는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일정한 공간을 차지한다, 움직인다, 일정한 크기, 모양, 무게 등을 가진다는 등의 성질들은 물리적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이지만 색, 소리, 맛, 향기 등은 우리의 감각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단지 그렇게 보일 따름인 성질들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도록 만든 실질적인 원인은 물질들의 크기, 모양, 조직, 운동 등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분명치 않은 점은 그러한 1차 성질들이 우리의 감각에 나타나는 이른바 ‘중간 크기의’(medium-sized)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인지 아니면 감각되지 않는(insensible)다는 물질입자들의 성질들인지 하는 점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록크의 다음과 같은 주장이 우리의 주목을 끈다. 즉 “물체들의 1차 성질들에 관한 관념들은 그 성질들과 유사한 것들로서 그 유형은 물체 자체에 정말로 존재한다. 그러나 2차 성질들에 의하여 우리에게 생긴 관념들은 그 성질들과 어떤 유사성도 갖지 않는다.”⁶⁾ 록크의 이 주장은 그의 실재론의 성격을 가늠해 볼 수 있을 법한 관건을 가진 주장이면서도 사실은 그 성격규정에 별다른 도움도 주지 못하는 모호하기 짹이 없는 주장이다. 그 진의(眞意)가 무엇이든 일단 이 주장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적어도 1차 성질에 관한 한 우리의 관념들에 나타난 바 그대로가 그 관념들의 원인제공자인 물체 속에 존재한다는 뜻이 되겠다. 다시 말하여 1차 성질들에 관한 관념들은 그 성질들을 정확하고 참되게, 그리고 충실히 표상한다는 뜻이 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해하였을 때 당장 생길 수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이 주장이 입자이론과는 양립되기 힘들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보거나 만질 때 지각되는 성질들은 입자들의 덩어리로 간주되는 그 물체가 정말로 가지고

게 부르든 표상적 실재론 ('표상'이라는 말은 록크도 빈번히 사용하였다.)의 핵심적인 내용을 록크의 지각이론에서 읽어낼 수 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6) *Essay*, Book II, Ch.VIII, 15, p. 137.

있는 성질들과는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입자가설의 핵심주장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학자들이 위의 주장의 의미를 그의 실재론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지만 필자의 눈에는 그 어느 것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⁷⁾ 필자가 보기에는 록크가 말한 '유사성'(resemblance)의 개념을 아무리 특이하게 해석해 보아도 거기에서 어떤 뾰족한 해결책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이를 실재론과 경험론적 인식론이 하나의 이론체계 내에서 공존하려면 부딪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로서 록크의 철학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하나의 과제로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한다.

록크의 표상적 실재론으로부터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러한 체계에서 도대체 우리의 의식, 우리의 관념과는 별도로 소위 '바깥에' 실재한다는 외부세계에 대한 지식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앞에서 잠시 지적한대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의식할 수 있는 것은 외부 세계에 실재한다는 사물들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관념들뿐이라면 우리가 외부세계에 대한 지식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외부세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관념들에 대한 지식일 뿐일 것이다. 록크 스스로도 이 점을 인식하고 물질적인 사물들의 본성 내지는 본질에 관해서 우리가 정말로 아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또 원리상 알 수 있게 되어 있지도 않다는 점을 강조하곤 하였다. 이때 사물들의 본질이란 물론 명목상의 본질(nominal essence)이 아니라 실질적인 본질(real essence)을 말한다. 록크에 의하면 어떤 사물의 실질적인 본질이란 그 사물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에 관하여 우리가 추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념 내지는 이름에 불과한 명목상의 본질과는 다르게 그 사물을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물질입자들, 그리고 그 입자들의 내적인 구조를 말한다. 예컨대 금(金)의 명목상의 본질은 '금'이라는 말로 표상되는 어떤 복합관념, 즉 이러저러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체라는 관념인데 반하여 그 물체가 그러한 성질들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게 해주는 원인으로서의 어떤 '감각 불가능한' 입자들의 구조가 금의 실질적인 본질이 된다. 따라서 록크에 의하면 실질적인 본질이란 우리의 감각에 나타나지 않는 어떤 것이다. 우리의 감각은 일정한 크기의 대상들에 대한 지각에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사물들

7) 다음이 그 대표적인 경우에 속한다.

M. Mandelbaum, *Philosophy, Science, and Sense Perception*, Johns Hopkins, 1964. Cf. pp. 15-30.

P. Alexander, *Ideas, Qualities and Corpuscles*, Cambridge, 1985, Cf. pp. 189-203.

의 참모습, 즉 실질적인 본질은 영원히 우리의 감각을 넘어서 있다는 것이 록크의 생각이었다.⁸⁾ 그렇기 때문에 록크가 말한 소위 ‘감각관념’이란 물리적 세계의 참모습을 대변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왜곡시킬 소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 록크에 의하면 우리의 관념들을 낳는 원천은 감각 아니면 반성(reflexion)인데 물리적 세계의 모습이 반성에서 드러날 가능성은 더욱 없다. 따라서 록크의 실재론에 따른다면 진정으로 과학적인 자연이해란 인간의 인식능력 저편에 놓여 있는 하나의 이상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또한 록크의 실체(substance)관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다. 록크의 실체관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선 아직도 해석상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성질들(qualities)이 그들 스스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성질들을 떠받쳐 주고 있는 어떤 것이 있지 않으면 안될 것이고 이때 이 어떤 것을 록크는 실체라고 보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 일반적인 해석에 의하면 록크의 실체는 성질들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알려질 수 없는 어떤 것이다. 즉 성질들을 떠받쳐 주는 기체(substratum)로서의 그러한 실체가 있다는 점은 말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⁹⁾ 왜냐하면 실체에 관하여 무엇이든 말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것에 어떤 성질들을 부여하게 될 것이고 어떠한 성질이든 일단 성질을 부여하게 되면 이는 실체 그 자체가 무엇인지 하는 질문과는 거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록크는 실체를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어떤 것”(something I know not what)이라고만 부를 수 있을 따름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지각될 수도 없고 기술(記述)될 수도 없는 어떤 것일 뿐이다. 성질들이 속해 있고 성질들이 내재해 있는 어떤 것이라는 것이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전부이다.

록크의 이러한 실체관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그 첫 번째 문제로 실체의 문제에 관한 록크의 입장이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다, 즉 좀 애매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그의 입장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였다 는 점에서 그것의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던 험(D. Hume)같은 엄밀한 경험론자의 입장으로부터도 벗어나 있고, 그것을 우리의 경험으로는 결코 알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는 점에서는 그것의 본질적인 속성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주장한 데까르뜨(R. Descartes)같은 합리론자의 입장과도 거리를 취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하여 실체와 관련하여 록크가 취한 태도에 이중성이 있었다는 뜻이다. 이중적인 태도

8) Cf. *Essay*, Book III, Ch.VI, 9, p. 444.

9) Cf. *Essay*, Book II, Ch. XXIII.

를 취하였다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겠으나 그 이중성의 내용이 하나는 실체의 존재의 인정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의 인식가능성에 대한 부정으로 구성된다면 문제가 안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두 내용은 쉽게 서로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록크의 입장이 그다지 선명해 보이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문제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어떻게 보면 록크의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이론적으로 양립되기 힘든 경험론적 인식론의 입장과 실재론의 입장을 모다 놓치지 않겠다는 데서 비롯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또 하나의 문제는 실체는 알 수 없는 어떤 것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어떤 맥락에 가선 그 스스로가 반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실체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았다. 그 하나는 물질적 성질들이 속해 있다는 ‘물질적’(material) 실체이고, 다른 하나는 의식, 감각, 상상 같은 물질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성질들이 속해 있는 ‘정신적’(spiritual) 실체이다.¹⁰⁾ 그러나 실체의 이러한 구분은 록크 자신의 실체관에 따른다면 그 인식론적 근거를 가지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실체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어떤 것’ 밖에 없다고 한다면 실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할 근거조차 찾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실체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선 그 두 가지 종류가 어떤 점에서 어떻게 다른 지부터 알아야 할 것인 바, 이는 실체에 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러한 문제는 실체의 인식가능성 여부를 본유 관념으로 해결하려 하였던 데카르뜨의 이원론에서는 발생되지 않는 문제이다. 본유 관념을 인정하지 않고 일체의 관념의 원천이 경험에 있다고 본 록크는 바로 그 인식론 때문에 정신적 실체와 물질적 실체의 구별근거를 경험적으로 설명해야 할 짐을 지지 않을 수 없고, 또 그것이 어떻게 설명되든 실체란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 있다는 원래의 주장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는 록크가 철두철미 당시의 과학적 업적에 근거하여 세운 물질실재론에 덧붙여 당시의 종교적 상식에 속했을 정신실재론도 반성 없이 추가시킨 데에서 비롯된 문제라고도 보여진다.

III

지금까지 간략하게 고찰한 것이 록크의 철학, 더 좁게 말하여 록크의 실재론의 개괄적인 내용과 그 문제점들이다. 이제 이러한 내용의 록크의 실재론에 대한 버클리의 반대입장을 어떠하였는지를 고찰해 보기로 하자. 버클리는 젊었을 때 당시 말브

10) Cf. *Essay*, Book II, Ch.XXIII, 5, pp. 297-298.

랑쉬(P. Malebranche) 철학의 요새였던 더블린의 트리니티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다. 거기서 그는 물리적 세계의 존재를 우리는 논증하지 못한다, 물리적 세계는 따라서 극히 의심스러운 것으로서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적인 것이라는 말브랑쉬의 철학을 배웠다. 동시에 말브랑쉬의 철학이 우리의 상식과 일상적 경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한 록크의 철학도 배웠다. 그리고 배일(Bayle)의 회의주의도 접하게 되었고 말브랑쉬의 철학을 위시한 많은 당시의 철학들이 반종교적 회의주의를 벗어나려는 신앙적 동기에서 출발하였다는 점도 배웠다. 특히 이 후자는 버클리 자신의 철학적 작업의 동기도 되었을 정도로 강한 영향을 끼쳤다.

버클리의 철학은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되었으며 그 배경의 중심에는 회의주의의 극복이라는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보기에도 어떤 철학도 회의주의를 극복하고 종교적 신앙심을 회복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 중에서도 록크의 철학이 가장 멀리 있었고 그러면서도 그의 저술은 당대에 가장 많이 읽히는 것 중의 하나로 꼽혔다. 이 점이 바로 버클리가 록크의 철학에 대한 비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기본적인 동기였다. 이러한 동기에서 그는 회의주의적 요소를 다분히 가졌다고 판단되는 당시의 주도적인 과학의 입장을 절대적으로 신봉하였던 록크의 철학과 분명한 거리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고, 더 나아가 그러한 철학은 ‘위험스럽다’고까지 판단되었다. 그래서 록크의 철학을 논파하는 작업을 그의 철학의 중심과 제 중의 하나로 삼았던 것이다.

버클리에 의하면 중세철학이 저질렀던 오류들보다 더 심각한 사상적 해(害)가 당시의 근대과학자들로부터 저질러졌다. 당시의 과학자들이 그런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와도 같아서 신이나 인간의 정신은 그 기계에 빌붙어 기생하는, 말하자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족(蛇足)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소위 ‘과학적인’ 우주관 내지는 세계관은 버클리의 눈에는 그냥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잘못된 철학으로 비쳤다. 그러한 우주관은 상식이 엄연히 인정하고 있는 것들까지도 불확실한 것으로 내몰아버리는 대단히 극단적인 회의주의를 유발시키고 종교와 도덕의 뿌리까지 흔들어버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버클리의 시각이었다. 따라서 그는 참된 종교와 도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과학, 또 거기에 바탕을 둔 철학은 단연코 배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버클리가 록크의 철학이 위험스럽다고 생각한 주된 이유는 우선 그것이 종교적 회의주의로 빠질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록크의 철학은 이 우주가 엄밀하게 정식화될 수 있는 기계적 법칙들에 따라 이루어진 거대한 기계와 같다는 당시의 과학적 상식을 그 바탕으로 삼았다. 이에 대한 버클리의 질문은 매우 종교적인 것이었다. 즉 록크의 철학에 따른다면 이 우주에 신이 들어 올 자리가 도대체 있는

가? 신의 존재 가정이 록크의 철학에서도 도대체 필요한 가정인가? 록크도 무신론자는 아니었기에 신은 이 거대한 기계의 창조자로서 그 기계가 굴러가도록 만든 장본인이라는 가정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또 하나의 가정도 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그 가정이란 이 우주가 영원히 존재해 왔다는 가정이다. 록크의 철학에는 이 가정을 반박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버클리의 지적이다. 버클리가 보기에는 만약 이 가정이 반박되지 않는다면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어떠한 이유도 성립되기 힘들다. 다시 말하여 만약 이 우주가 영원히 기계적인 운동을 해 왔다면 그러한 운동을 하게끔 한 어떤 창조주가 반드시 있다고 가정할 하등의 이유도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버클리는 록크의 철학체계 내에선 신의 지위가 꼭 있어야 된다는, 또는 있음에 틀림없다는 필연성이 결여된 사족과 같은 것으로 전락하고 말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비슷한 이야기를 영혼의 문제에 관해서도 할 수 있다. 록크도 이 우주에는 물질 이외에도 다른바 '비물질적'이라고 불리는 실체들, 즉 마음 또는 영혼들도 존재한다는 당시의 상식적 견해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과학에 근거를 둔 그의 철학 체계 내에선 이러한 견해가 다른 과학적인 견해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점을 그 스스로도 인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의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질의 한 성질에 불과할지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의식 또는 마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과 함께 완전히 없어지고 만다는 결론, 육체가 와해되고 난 뒤에도 살아남을 어떤 것이 있다고 믿을 하등의 이유도 없을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버클리의 지적이었다.

이와 같이 당시의 과학과 록크의 철학에 대한 버클리의 공격은 주로 종교적인 동기에서 유발된 것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그의 반박은 종교적 믿음과는 무관한 논리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였다. 록크의 <인간오성론>(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이 종교적 회의주의나 종교적 불신을 초래할 위험성만 내포한 것이 아니라 극히 상식적인 논리에도 맞지 않는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인 요소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버클리의 판단이었다.

버클리가 록크의 철학에서 불합리하다고 본 것 중의 대표적인 것이 관념과 대상의 구분문제였다. 앞에서 잠시 언급하였다시피 록크는 우리가 직접 의식하는 마음속의 관념들과 그 관념들에 의하여 표상된다는 바깥 세계의 대상들은 서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른 한편으로는 바깥의 대상들의 실재모습이 우리의 관념들이 표상해주는 바대로는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버클리는 바로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우선 버클리는 소위 '2차 성질'이라는 것들은 정말로 대상 속에 실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록크의 주장을 문제삼는다. 록크의 주장대로라면 우리가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많은 것들이 한갓 환영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예컨대 마당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들이 보여주는 색깔과 향기 등이 정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감각과 관련하여서만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가 될 것인지 버클리는 반문한다. 2차 성질에 관한 록크의 주장은 단순히 좀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상식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는 것이 버클리의 생각이었다. 이에 더하여 이보다는 더 근본적인 문제로서 록크가 제시한 1, 2차 성질간의 구분에 대한 근거는 사실상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버클리의 두 번째 지적 사항이다. 대상들이 관찰의 조건이 달라짐에 따라 또는 관찰자의 상태가 변함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 2차 성질들의 특징에 대한 록크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2차 성질들뿐만 아니라 1차 성질들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특징이라는 것이 버클리의 지적이다. 따라서 록크가 제시한 성질들의 구분근거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1, 2차 성질들의 구분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심각한 논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처음에 지적한 관념과 대상간의 구별이다. 이 구별과 관련하여 생기는 문제는 록크의 철학에서 그러한 구별의 인식론적인 근거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다. 관념과 대상이 하나는 표상하고 다른 하나는 표상되는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표상관계가 성립함을 인식론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쉽게 말하여 우리의 관념들이 어떤 때는 대상에 대한 참된 표상이 되고, 또 어떤 때는 참된 표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터인데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버클리가 보기에도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록크의 철학에선 나올 수 없다. 우리가 어떤 정물화를 두고 그것이 정말 문제의 사물을 잘 그린 것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그 그림과 그 사물을 비교해 보아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록크에 의하면 우리가 실지로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관념뿐이다. 따라서 어떤 관념이 또 다른 관념과 닮았는지 아닌지는 말할 수 있어도 그 관념이 관념 아닌 ‘외부대상’과 닮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은 록크의 철학체계 내에선 완전히 막혀 있다. 그러므로 ‘외부세계’가 우리의 관념들에 의하여 나타난 바와는 전적으로 다를지도 모른다는 회의주의 도전에 어떠한 대답도 록크의 철학에선 나올 수 없다는 것이 버클리의 지적이다.

이와 밀접히 연관된 문제가 또 하나 있다. 록크의 주장에 따른다면 소위 ‘외부세계’라는 것의 존재가 매우 불확실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쉽게 말하여 내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마음속에 있는 관념들뿐이라면 내가 결코 알 수 없는 또는 원리상 알게 되어 있지 않는 어떤 것이 나의 바깥에 존재한다는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 록크에 의하면

우리의 관념들은 각각 원인들을 가진다. 그리고 감각관념들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은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감각관념들의 원인은 외부세계일 것이라는 록크의 가정을 정당화시켜 주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사실은 ‘외부대상’이라는 것도 없고 ‘외부세계’라는 것까지도 없을지도 모른다는 회의주의적 반론에 대해 록크의 철학은 어떠한 대답도 내놓을 수 없다는 지적이 다시 한번 가능하다. 그러므로 베클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이라는 표현은 실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세계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아무 것도 아닌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록크는 대답하기 어려우리라는 것 역시 베클리의 지적이다.

더 나아가 베클리는 ‘외부대상들’에 근거하여 관념의 발생을 기계적으로, 그리고 인과적으로 설명하려한 록크의 시도는 원천적으로 실패하게 되어 있다고 보았다. 두 뇌의 어떤 특정한 기계적 움직임이 어떻게 그것과는 전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관념과 같은 것들을 산출하게 되는지는 록크의 철학에서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고, 이 점은 록크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자인한 바 있다. 베클리에 의하면 기계적 인과라는 개념자체가 도대체 아무런 설명력도 가지고 있지 못한 개념이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외부대상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 관념이 발생한다는 맥락에서의 ‘원인’과 ‘결과’라는 말은 잘못 사용된 경우에 속한다. 참된 원인은 무엇인가를 생성시키고 발생하게 하는 어떤 것으로서 인간의 의지작용이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서는 어떤 것이 어떤 것보다 먼저 발생하였다는 시간적 선후관계만이 이야기될 수 있기에, 그리하여 그러한 관계가 반복해서 일어날 때 어떤 규칙성 같은 것은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가 다른 하나를 생성시키거나 발생시킨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로서의 원인은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 베클리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에 의하면 소위 ‘기계적 인과’라는 것이 정말로 인과인 것은 아니다. 기계적 인과는 동인자(agent)나 의지의 행사자에 대한 언급도 없이 그냥 사건들의 규칙적인 발생만 기술할 뿐이므로 그것이 하나의 좋은 기술(description)은 될 수 있을지라도 설명(explanation)의 일종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록크와 베클리 간의 이러한 견해 차이는 더 근본적으로는 자연을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록크는 자연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그 구조가 복잡하여 인간으로서는 이해 불가능한 거대한 시계와 비슷한 것으로 여겼다. 그는 우리가 자연에 대한 진정으로 과학적인 지식을 획득할 가능성이 대해서 매우 비관적이었다. 이에 반하여 베클리는 자연의 구조가 기계적이라는 생각에는 강한 반

감을 가졌다. 그는 자연이 기계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보았다. 도대체 자연을 거대한 하나의 기계와도 같다는 발상 자체에 그는 강한 거부감을 가졌다.

록크의 실재론에 대한 베클리의 대안은 그렇다면 무엇이었는가? 베클리가 택하였던 방안은 한마디로 물질의 독립적 존재를 부인하는 방안이었다. 베클리는 물질의 독립적 존재를 부인함으로써 록크의 실재론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러한 문제들이 해소된다고 보았다. 왜 해결이 아니라 해소냐 하면 물질의 독립적 존재가 처음부터 부인된다면 ‘물질적 실체’라는 개념 때문에 록크가 겪었던 철학적 고뇌는 아예 생기지도 않을 것이기고, 만약 물질적 실체라는 것이 없다면 록크가 사용하였던 의미로서의 ‘외부 물체’라는 것도 없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베클리가 보기에는 록크의 ‘외부 물체’라는 개념은 회의주의가 발흥할 빌미만 제공하였지 세계를 설명하는 데에 아무런 적극적인 역할도 못하는 불필요한 개념이었다. 따라서 ‘외부 물체’라고 하는 것들의 존재가 부인되면 우리가 평소 지각하는 여러 대상들이 우리와는 관계없이, 우리로부터 독립하여 있는 어떤 실재적인 원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는 생각에 베클리는 도달하게 되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관념들을 가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우리가 지각하는 여러 대상들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바 그대로 존재하고 있음도 또한 확실한 사실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때의 존재란 우리의 관념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다. 록크는 이 존재를 우리의 관념으로부터 분리시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베클리의 주장이다. 다시 말하여 베클리는 이 세계를 우리가 지각하는 관념의 세계와 그 배후에서 우리의 접근을 막고 있는 알 수 없는 ‘외부 물체’들의 세계로 이원화시켰다는 것이 록크 철학의 결정적인 잘못이라고 보았다. 그는 따라서 이 후자의 세계를 단순히 지워버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실제 경험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며,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도 아무런 잃는 바도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회의주의적 물음과 도전이 생기는 것도 바로 세계를 이원화시켰기 때문이며, 록크의 철학이 극복할 수 없는 설명의 짐을 지게 된 것도 이원화된 세계관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베클리가 주장하듯이 외부 물체들의 독립적인 존재가 부인된다면 무엇이 원인이 되어 우리의 관념들이 발생한다는 뜻인가? 록크가 가정하였듯이 만약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대상, 예컨대 한 그루의 나무가 원인이 아니라면 나의 머리 속에 떠올리고 있는 그 나무에 대한 관념은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것일까? 베클리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관념들이 생기게 된 데에는 어떤 원인이 없을 수 없으

나 그 원인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접근도 할 수 없는 ‘외부대상’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원인이란 의지의 작용 같은 능동성을 가진 것이라야 하는데 만약 물질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추정된 본성상 어떠한 능동성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버클리는 관념발생의 진짜 원인은 비물질적이고 능동성을 가진 어떤 정신적 실체, 즉 신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관념들이 유한한 우리의 마음속에 비교적 체계적이고 어떤 질서를 가진 방식으로 주어졌음은 바로 신의 의지가 그렇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IV

이러한 버클리의 주장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며 그 문제점들에 대한 버클리의 가능한 대답들은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일일이 점검해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물질이 우리와는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의 주장의 논리적 내지는 철학적 근거들을 여기에서 세부적인 데까지 소개하고, 그 근거들에 대한 가능한 반론들을 고찰해 보는 일은 다른 기회로 미루겠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 글의 마무리 삼아 실재론 논쟁과 관련하여 그의 지각이론에 대한 핵심적인 논쟁점 한 가지만을 점검해보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물리적 세계로부터 ‘실재성’(reality)을 없애버렸다는 것이 버클리의 철학에 대한 통상적인 비판이다. 다시 말하여 물리적 세계 전체를 인식주관인 나 속에 집어넣어 관념화시켜버렸다는 것이 ‘주관적 관념론’이라고 명명한 헤겔을 비롯한 그 후의 많은 철학자들로부터 들어 온 한결같은 비판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비판이 버클리의 철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근거한 비판인지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버클리의 철학을 왜곡시켰는지 아닌지 하는 문제는 부분적으로 “물리적 세계를 관념화시켰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와도 관련이 된다고 본다. 이 말이 물리적 세계가 문자 그대로 사라지고 개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한갓 이미지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림을 뜻할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은 비판가들의 비판에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버클리 철학에 대한 정당한 이해라고 할 수는 없을 듯하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버클리는 일종의 백일몽을 꾼 단순한 정신이상자에 불과하였고 또 그의 철학은 하나의 환상적인 그림과 같은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버클리의 철학에서 하나 흥미로운 점은 그 자신 그러한 비판을 미리 예상하고 그 것에 대한 대답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의 원리들에 따른다면 자연의 모든 실재적인 것들이 세계로부터 추방당하고 그 자리를 관념이라는 괴물들이 대신 차지했다는 반대가 있을 것이다. …… 태양과 달, 그리고 별들은 어떻게 되는가? 집, 강, 산, 나무, 돌들, 심지어는 나 자신의 신체까지 포함하여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할까? 우리가 상상해내는 그 많은 공상이나 환영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나의 원리들은 자연에 있는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빼앗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듣든, 또 어떻게 인지하고 이해하든 모든 것은 여전히 확실하고 그 전과 하등의 다를 바 없이 실재적(real)이다. 실재적 자연(rerum natura)이 엄연히 있고, 실재적인 것들과 환상적인 것들 간의 구별도 엄연하다.¹¹⁾

나는 감각에 의해서든 반성에 의해서든 내가 파악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의 존재도 부인하지 않는다. 내가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나 나의 손으로 만지는 것들은 존재하며, 정말로(really) 존재한다는 점을 나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단 한 가지 내가 그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철학자들이 물질 또는 물질적 실체라고 부르는 것이다.¹²⁾

나는 어떤 철학자보다도 더 실재편이다. 철학자들은 우리가 속임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수천 번이나 의심하고 또 의심한다. 나의 주장은 그 정반대이다.¹³⁾

이상과 같은 구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을 수 있는가? 우선 경험적으로 확인되는 그 어떤 것의 존재도 부인하지 않고, 그것이 실재함도 부인하지 않는다는 버클리의 주장을 감안해볼 때 그가 실재세계를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해묵은 비판은 너무 성급한 재단이었지 않나 하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물론 이에 대해서 버클리가 ‘실재’ 개념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럴 경우 ‘실재’ 개념의 올바른 사용은 그렇다면 무엇인지라는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수 없는 성질의 것임은 철학의 역사가, 특히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는 실재론 논쟁의 역사가 잘 증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버클리가 자연세계의 실재성을 크게 손상시켰다는 비판은 자칫 논점절취의 오류(begging the question)에 빠질 위험을 안고 있다.

또 하나 위의 구절에서 주목할만한 대목은 버클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11) G. Berkeley, *The Principles of Human Knowledge*, 34.

12) *Ibid.*, 35.

13) G. Berkeley, *Philosophical Commentaries*, entry 517a.

부인하는 것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철학자들에 의하여 ‘물질’(matter) 또는 ‘물질적 실체’(corporeal substance)라고 불리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 점은 많은 비판가들이 충분한 주목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라 보여진다. 이 사실은 많은 비판가들이 버클리의 철학을 철학사적 맥락에서 파악하려는 노력에는 인색했다는 점과도 연관된다. 앞에서도 밝혔다시피 버클리의 철학은 록크의 철학에 상대해서 나왔다는 점, 후자가 없었더라면 전자도 없었을 것이라는 점은 버클리의 철학을 이해하는 데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물질적 실체에 대한 버클리의 부정적 입장이 가지는 철학적 의미도 그 점을 염두에 두었을 때라야 드러난다. 물질적 실체의 부정은 철두철미 록크의 철학, 특히 록크의 실체관에 대한 부정이었다. 따라서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은 무시해버리고 버클리의 그 주장만을 역사적 맥락에서 따로 때내어 마치 어떤 상품에 대한 품평회를 하듯이 접근한다면 그 주장의 진정한 의미와 의의는 제대로 파악이 안될 것이라 생각한다.

버클리가 부인하고자 한 것은 우리가 일상적 경험에서 만나는 일상적인 것들의 존재가 아니라 록크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물질적 실체의 존재이다. 물론 물질의 존재도 부정했지만 이때 ‘물질’이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거나 만지는 구체적인 사물들이 아니라 추상화된 (버클리는 추상관념을 부정했다) 물질을 뜻한다. 그것은 한 마디로 ‘물질적 실체’라는 것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따라서 버클리의 주장에 나오는 ‘물질’을 책, 연필 등과 같은 경험적 사물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버클리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편 환상가, 몽상가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버클리는 오히려 근대적 사유의 큰 맹점, 즉 관념과 사물을 분리함으로써 일상적 세계가 관념의 막에 가려져 버리는, 그럼으로써 일상적 세계의 확실성마저도 부인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 건전한 상식인이 되고자 하였다.

문제는 그러나 철학적 독단과 회의주의라는 양날에 손상을 입은 근대적 사유에 건전한 상식을 되찾게 해주고자 한 버클리의 시도가 상식을 회복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상식에서 더 멀어졌다는 데에 있다. 그가 되찾고자 한 건전한 상식 중에 핵심적인 것은 역시 상식적인 실재성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실재의 문제를 너무나 간단하게, 문자 그대로 상식적으로만 처리함으로써 실재성의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실재성의 또 다른 훼손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 같다. 철학적 반성과 상식간에는 언제나 긴장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철학적 반성은 항상 상식을 되묻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나 철학적 반성의 궁극적 목표는 상식을 파괴하자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더 공고히 하자는 것일 터이다. 버클리의 철학적 반성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목표가 양자간, 즉 반성과 상식간에 충돌과 접전이 있어야, 그리고 그 충돌과 접전에 대한 또 다른 반성이 따라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가볍게

보지 않았나, 다시 말하여 철학적 반성과 상식간의 긴장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았나 한다. 그래서 자신도 철학적 반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상식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나 한다. 그 결과 그가 손을 들어준 상식은 사실은 상식이 아닌, 상식과는 거리가 먼 절름발이가 되어버렸지 않나 한다.

이 점은 바로 착각(illusion)의 문제에 대한 그의 입장과 설명에서 잘 드러난다. 감각의 오류 가능성은 철학자들을 줄기차게 괴롭혀 온 오래된 문제이다. 그 문제는 간단히 말하여 감각이 없다면 인간과 세계의 기본적인 통로가 막혀버리는 격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감각은 언제나 잘못을 범할 수 있기에 그 통로를 통하여 들어오는 세계의 모습을 그대로 믿을 수도 없는 딜레마적 성격을 띤 문제이다. 특히 착각은 감각적 오류의 극단적 경우로서 오래 전부터 철학자들의 특별한 주목을 받아왔다. 착각 현상이 우리가 사물을 지각할 때 직접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편으로 써 관념과 실재를 구별하는 모든 종류의 실재론에 대한 중요한 논거를 제공해주게 된 것도 그러한 주목의 한 결실이다. 따라서 버클리가 관념과 실재를 구분하지 않고서도 “실재의 편에 서 있다”고 주장하려면 착각의 현상도 역시 그러한 방식, 즉 관념과 실재를 구분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제 3 대화>에서 버클리는 그러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착각의 문제는 먼저 하일러스(Hylas)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이라 말할 수 있는가? 당신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는 사물이 실재함을 감각에 의해서 판단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둥근 달을 평면적인 것으로, 멀리서 본 사각탑을 원형으로, 반쯤 물 속에 잠긴 것 가락을 휘어진 것으로 보는 착각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¹⁴⁾

이에 대한 버클리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우리가 실지로 보는 것에 관해선 잘못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에게 직접 지각되는 것은 모두 실재적 대상이기 때문에 지각적 오류나 착각이 지각된 것 (percepts)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착각은 우리가 이미 본 것으로부터 앞으로 볼 것을 예상하고 추리할 때 생기는 현상이다. 물에 잠겨 휘어져 보이는 젓가락이 물 밖으로 나왔을 때도 비슷하게 휘어진 것으로 지각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거기서 바로 잘못이 발생한다. 기대한 바와는 다르게 지각될 것이기 때문이다.¹⁵⁾

14) G. Berkeley, Three Dialogues between Hylas and Philonous, in *Berkeley's Philosophical Writings*, ed. by D. M. Armstrong, Collier, 1965. p. 200.

15) Cf. *Ibid.*, p. 200

만약 그렇다면 젓가락은 휘어진 것인가 아니면 곧은 것인가? 멀리서 본 달은 평면적인 것인가 아니면 구(球)의 형태를 띤 것인가? 탑은 사각형인가 아니면 둥근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버클리의 대답은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질문은 ‘젓가락’, ‘달’, ‘탑’ 등의 이름에 의해서 지시되는 단일한 불변의 어떤 것이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 잘못된 질문이다. 우리가 비슷한 지각들을 연속적으로 할 때 그것은 어떤 동일한 대상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각각 독립된 유사한 지각들의 계기적 발생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우리의 언어가 각각의 지각들에 대한 이름을 모두 가질 정도로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편의상 지각된 것 각각에 개별적인 이름으로 지칭하지 않고 유사한 지각들의 계기(sequence)에다 공통의 이름을 붙일 따름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실은 각각 구별되는 것들이다. 직접적인 지각 자체에서는 어떠한 착각도 있을 수 없다. 직접적으로 지각되는 것은 모두 실재한다. ‘의자’라고 이름 붙여진 것에 대해서 시각, 거리, 위치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지각이 가능한데 이것들은 동일한 사물에 대한 각각 상이한 지각들이 아니라 각각 구별되는 그러나 법칙적으로 상호 연관되는 여러 대상들에 대한 지각들이다.

그러나 버클리의 이러한 설명은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식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각각의 개별적인 지각들이 모두 독립되고 분리된 존재라고 믿을 사람이 버클리 자신 빼고는 또 누가 있겠는가? 어떤 위치, 어떤 시각에서 보면 의자의 다리가 2개 또는 3개로 보일지라도 의자가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고, 서로 다른 위치, 서로 다른 각도에서 지각된 것은 각각 다르고 분리된 것일지라도 그것들이 모두 하나의 의자에 대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상식이다¹⁶⁾. 그리고

16) 이 점은 상식뿐만 아니라 과학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따라서 그의 지각이론은 과학과도 배치된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때 ‘과학’이라 함은 물론 버클리가 살았던 당시의 과학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여 실재하는 것은 개별적 지각들에 의하여 각각 분리된 파편물들 뿐이지 하나의 동일한 물질로서의 지속적 대상은 없다는 그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특히 물리학과 같은 학문의 성립근거가 위태로워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록크의 철학에선 이 점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록크는 물질의 입자 구조에 관한 이론이 그대로 이 세계에 있는 대상들에 곧바로 적용되는 참된 이론이고 물질은 마치 어떤 건축물이 문자 그대로 벽돌들로 구성되어 있듯이 문자 그대로 감각될 수는 없지만 틀림없이 존재하는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버클리에게는 전적으로 근거 없는 믿음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에게는 물질 입자가설이 도대체 참일 수가 없는 이론이었다. 왜냐하면 그 이론이 참이려면 무엇에 대한 참일 터인데 그 무엇이란 애

그 상식은 어떤 철학적 반성과 분석에 의해서도 부인될 수 없는 견전한 믿음이다. 소박하고 상식적인 실재개념을 되찾겠다는 버클리의 철학적 시도는 바로 착각의 문제로 인하여 상식과는 더 멀어진 결과를 낳았고 또 그럼으로써 회의주의를 일거에 불식시키겠다는 그의 야심도 상식적 실재론을 부인하는 또 다른 회의주의를 낳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초부터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컨대 갈릴레오(Galileo)나 뉴턴이나 보일 같은 당시의 주도적 과학자들이 이룩해 놓은 지적 작업들은 다 무엇이란 말인가? 버클리의 주장에 따르다면 우리의 경험을 일반적 법칙에 귀속시키는 일, 즉 우리의 경험의 실제 과정에 대한 경험적 일반화를 이루어내는 일이 과학자들의 기능이다. 과학자들이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한 언급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 즉 관념들 외에는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외에 어떠한 것에 대한 조회나 언급도 합법적인 것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자연과학도 관찰 가능한 세계에 대한 매우 일반적인 기술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렇게 이해된 과학에 대해선 버클리도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과학이 관찰 가능한 것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에 있다. 보일의 입자가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물질 입자설 뿐만 아니라 당시의 광학이론들도 매우 유용하였던 이론들로서 그 이론들은 단순한 우리의 관념들에 대한 일반적 기술의 차원은 분명 넘어서는 것들이었다. 버클리는 바로 자신의 철학적 이론에 따라 당시의 과학이론들을 참인 이론으로 간주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입증된 그 이론들의 유용성마저 부정할 수는 없었다. 이 궁지에서 그가 찾아낸 탈출구는 바로 유용성과 진리를 구분하는 길이었다. 과학의 목적이 관찰된 현상들을 일반 법칙으로 환원시키는 일이라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거기에서 과학자들이 적절한 가정을 함으로써 그들의 목적이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견해를 추가시켰다. 예컨대 빛을 마치 감각 불가능한 입자들의 흐름이라고 가정한다면 빛에 관한 다양한 현상들이 몇 가지 단순한 기계적 용어들로 표현되는 하나의 이론 내에서 포괄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버클리도 인정하였다. 다시 말하여 그 이론들이 그러한 점에서 유용하다는 점은 그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 이론들이 유용하다고 해서 바로 참인 이론들이라는 귀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버클리는 감각 불가능한 입자들에 대한 언급이 어떤 이론적인 목적에 이바지할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나온 이론들이 유용한 발명품의 지위와 비슷할 뿐, 그것들이 무엇에 대하여 참되다거나 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함은 잘못이다. 그에 의하면 이론의 가치는 유용성에 있지 진리에 있는 것은 아니다. 과학이론에 대한 버클리의 이러한 견해는 그 의미가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인식되기 시작한 중요한 통찰을 내포하고 있다.

참고문헌

Realism and Antirealism, ed. by P. French, T.E. Uehling, and H.K. Wettstein,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vol.XII, Univ. of Minnesota Press, 1988.

Scientific Realism, ed. by J. Leplin, Univ. of California Press, 1984.

B. D'espagnat, *Reality and the Physicist*, Cambridge Univ. Press, 1989.

B. C. Van Fraassen, *The Scientific Image*, Clarendon Press, 1980.

L. Laudan, *Science and Relativism*, The Univ. of Chicago Press, 1990.

H. Putnam, *Realism and Reason*, Cambridge Univ. Press, 1983.

J. Barnes, *The Toils of Scepticism*, Cambridge Univ. Press, 1990.

B. Mates, *The Skeptic Way*, Oxford Univ. Press, 1996.

H. Robinson, *Perception*, Routledge, 1994.

New Representationalism, ed. by E. Wright, Avebury, 1993.

J. McDowell, *Mind and World*, Harvard Univ. Press, 1994.

C. Wilson, *The Invisible World*, Princeton Univ. Press, 1995.

J. W. Yolton, *Perception and Reality*, Cornell Univ. Press, 1996.

A General History of Sciences, ed. by R. Taton, Thames and Hudson, 1963.

Issac Newton: Papers Letters on Natural Philosophy, ed. by I. Cohen, Cambridge Univ. Press, 1958.

Newton's Scientific and Philosophical Legacy, ed. by P. Scheurer and G. Debrock, Kluwer, 1988.

Metaphysics and Philosophy of Science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ed. by R.S. Woolhouse, Kluwer, 1988.

Selected Philosophical Papers of Robert Boyle, ed. by M.A. Stewart, Hackett, 1991.

The Rise of Modern Philosophy, ed. by T. Sorell, Clarendon, 1993.

G. Buchdahl, *Metaphysics and the Philosophy of Science*, Univ. Press of America, 1988.